



(왼쪽부터) 코리 웰즈 SRM 사장, 강일남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이양치엔 MISC 회장 겸 그룹 CEO, 자히드 오스만 MISC LNG 사업부 부사장

/삼성중공업

## 삼성重 노사, 영업 함께 뛰며 결속력 다져

올해 임금협상 가장 먼저 마무리  
3개월 연속 수주잔량 세계 1위 유지

삼성중공업 노사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해외 영업에 함께 나서며 추가 수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1일 남준우 사장과 강일남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이 말레이시아 선사 MISC 사주관 조청행사에서 용선주인 액슨모빌 자회사 SARM 경영진 등을 만나 감사 인사와 함께 최고의 안전, 품질을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0월 MISC로부터 최신 사양의 17만4000m<sup>3</sup>급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으며, 이들 선박은 인도 후 미 오일 메이저 액슨모빌 자회사

사가 생산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15년간 운송할 예정이다.

이날 강일남 위원장은 두 회사 경영진을 만나 “삼성중공업을 믿고 일감을 맡겨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며 “노사가 합심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임금협상을 마무리 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영업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7척·54억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 78억달러의 69%를 달성 중이며, 클락슨 리서치 기준 3개월 연속 수주잔량 세계 1위(519만CGT)를 유지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LS전선, 도산업체 인수 석달만에 정상화

에스원텍 세종공장, 생산 체제 갖춰  
내년 약 600억원으로 성장 기대

LS전선이 파산 위기에 처했던 전선업체를 정상화 가동시켰다.

LS전선은 최근 중소 전선업체 에스원텍 세종 공장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스원텍은 지난 7월 LS전선 자회사 지앤피가 16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회사다. 2018년 6월 도산했지만, 지앤피가 퇴사 직원 중 20여명을 재고용하고 30여명을 추가 채용해 50여명을 확보해 다시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됐다.

LS전선은 에스원텍이 지앤피와 시너지를 일으켜 2020년에는 약 600억 원, 2024년에는 1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매출액(200억원)보다 5배 가량 성장한 수치



지앤피 세종사업장

/LS전선

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글로벌 시장의 케이블 수요 증가로 국내외 공장 증설과 신규 법인 설립 등을 검토해 왔다”며 “국내 대표 전선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국내 투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

## KT, 온실가스 923톤 감축 ‘국무총리 표창’

KT는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한국에너지 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41회째를 맞이하는 ‘한국에너지 대상’은 산업통상부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국내 에너지 관련 업계에서 뛰어난 성과와 혁신을 이루어낸 유공자 및 단체를 선정하며, 에너지 분야 최고의 권위를 지닌 상으로 평가된다.

KT는 2017년부터 스마트 에너지를 포함한 5대 플랫폼을 집중 육성하며, 스마트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유·무선 통신용 냉각시스템 신기술 적용 및 통신시설의 운용 최적화를 통해 지속

적인 에너지 절감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KT 북대구사옥은 노후설비 교체와 함께 KT의 통합 에너지관리 플랫폼(KT-MEG)기반의 전력 최고점 제어, 수요지원 거래시장(DR시장) 참여,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5년간 연평균 에너지는 3.8%, 온실가스는 923톤을 줄였다.

이런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KT는 이번 ‘2019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에너지효율향상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KT는 올해 에너지대상에서 통신사 중 유일하게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김나인 기자 silkn@

# GS, 중동 원유거래소 창립멤버 됐다

원유가 확정방식 변경, 투명성 ↑  
미반 원유에 거래 활성화 기여

GS칼텍스가 원유 선물거래소 설립에 참여해 원유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GS칼텍스는 지난 11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아드녹과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 비피(BP)를 비롯해 글로벌 에너지기업 8개사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되는 미반(Murban) 원유 선물거래를 위한 ICE 아부다비 선물거래소 설립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정유사 중에서는 GS칼텍스가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허세홍 GS칼텍스 사장과 원유



ICE 아부다비 선물거래소 설립 제휴 계약 체결식에서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오른쪽)이 술탄 압둘라 알 자베르 아드녹 CEO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S칼텍스

선물거래소 참여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CE 아부다비 선물거래소는 내년 상반기 중 미반 원유를 대상으로 선물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 설립되는 ICE 아부다비 선물거래소에서는 기존 선적월 다음달에 결정된 미반 원유 가격을 선적월 이전달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구매자 입장에서 가격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 홍 향량 규제 강화 제도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경질 원유인 미반 원유에 대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거래 가격의 투명성도 높이게 됐다”며 “향후 경제성 있는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lm2935@metroseoul.co.kr

## ‘U+카카오내비’ 이용하면 데이터료 면제

LGU+-카카오모빌, 1호 서비스  
1분 단위의 빠르고 정확한 길안내  
미래 특정 시점 교통 정보 제공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력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U+카카오내비’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 양사가 체결한 ‘5G 기반 미래 스마트 교통 분야 서비스’ 협력 MOU 이후 내놓은 1호 서비스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와 LG유플러스 알뜰폰(MVNO)을 쓰는 통합에볼루션(LTE) 및 5G 고객들은 앞으로 U+카카오내비 이용 시 제로레이팅을 적용 받게 된다. 약 1400만 고객이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내비게이션 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원내비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은 업데이트만으로도 애플리케이션(앱)이 전환된다. 구글플레이 또는 원스토어에서 ‘U+카카오내비’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최초 로그인 시 원내비에서 사용하던 즐겨찾기, 최

**LG유플러스 | 카카오모빌리티**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출시**



문현일 LG유플러스 모바일서비스2담당(왼쪽)과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 전무가 U+카카오내비 출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LG유플러스

근 목적지는 간단한 매뉴얼을 통해 이관할 수 있다.

U+카카오내비의 가장 큰 특징은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 택시기사, 대리기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1분 단위의 빠르고 정확한 길안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멀티레이팅 기술을 적용해 보다 정확한 예상 소요 시간을 알려주고, 미래 운행 정보 기능을 탑재해 최대 1년까지 미래 특정 시점의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모바일로 실시간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검색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한번

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마련됐다.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가 접목되어 ‘헤이카카오’를 부르면 음성 인식이 작동되며, 원하는 명령어를 말하면 된다. 기존에 휴대폰을 직접 조작해야만 했던 목적지 변경, 음악듣기, 포털 검색, 날씨정보 검색 등 음성만으로 모두 해결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U+카카오내비 출시를 기념해 이용 고객 중 매일 100명을 추첨해 총 3000명에게 주유권 및 스타벅스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내달 5일까지 연다. /김나인 기자

## 효성티앤씨, 日제품 잡는 발열 내의… “기술력 진가 발휘할 것”

무신사와 ‘마이 히트’ 출시  
땀 흡수·배출 기능 뛰어나

효성티앤씨가 겨울 의류 ‘독립 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효성티앤씨는 최근 무신사와 손잡고 ‘마이 히트’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이히트는 효성의 발열 폴리에스터와 에어로히트 익스트림으로 만든 발열 내의다. 빛을 흡수해 열 에너지로



효성. /연합뉴스

류 시장을 되찾겠다는 포부다. 앞으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패션 기업들과도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준 회장은 “그동안 해외업체가 주도했던 국내 빌열내의 시장에서 효성 기술력이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번 광발열 폴리에스터를 비롯해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탄소섬유 등 원천·독자 기술에 대한 꾸준한 집념으로 소재강국 대한민국 건설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